

지역 소식통

2020 인구주택 총 조사 정읍시, 조사요원 모집

정읍시는 통계청 주관으로 오는 11월에 실시될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참여한 조사요원 130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마다 조사하는 국가 기본 통계로 대한민국의 영토 내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그들이 살고 있는 거처에 대해 조사한다.

인구와 가구, 주택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며, 각종 국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시는 이번 조사를 위해 총 130명의 조사요원을 모집할 계획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일까지 11일간이며, 합격자는 9월 11일 이후 SMS를 통해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신청방식은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www.census.go.kr)를 통한 인터넷 접수와 정읍시 정보통신과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주거 취약계층 환경개선 사업 등 실시

부안군은 어려움을 처해있는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기관들과 협력해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에 나섰다.

이번 대상가구는 중증장애인가구로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태로 수년간 집에 쓰레기 등을 쌓아두어 화재위험 및 위생문제가 발생하는 등 생활환경에 매우 열악한 실정이었다.

이에 부안군은 부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시행하는 동네방네 클린봉사대 사업을 연계하여 지난 19일 부안롤린케어에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했고 부안군청 환경과 자원순환팀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했다.

또한,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생활 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사후관리 등을 병행하여 앞으로 쓰레기가 적치되지 않도록 합을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정읍시, 폭염대책 '바쁘다'

## 예년보다 잦은 폭염특보 발효 예상... T/F팀 구성 운영 스마트 그늘막 · 얼음 비치 · 야외 무더위 쉼터 등 추진

정읍시가 긴 장마 이후 본격적인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폭염 대책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부터 체감 온도 기반의 폭염특보 기준을 도입, 시범 실시함에 따라 예년보다 잦은 폭염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폭염 대비 행동 요령 홍보물과 이에 따라, 시는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도시안전국장 총괄로 '폭염T/F' 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T/F팀은 유관기관과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스마트 그늘막과 승강장 주변 얼음 비치, 야외무더위쉼터 등 다양한 폭염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344곳에 대해 무더위쉼터 간판 부착 상태와 냉방기 가동 여부, 냉방기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긴급 점검에 나섰다.

또 폭염 대비 행동 요령 홍보물과 불편 사항 안내문을 비치하고,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체온측정과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는 등 방역관리에도 철저히 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성동 근린공원과 정읍우체국 앞 내장산위터파크를 야외무더위 쉼터로 선정해 주변 자연환경을 활용한 휴식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야외무더위쉼터에서는 야외냉방기와 얼음물, 쿨토시, 쿨매트, 쿨스프레이 등 다양한 폭염 예방 물품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접촉식 체온계와 손소독제 등을 구비하고 마스크 착용 안내와 출입자 관리, 체온 측정 등을 위해 방역관리를 배치해 관리하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더위가 심한 낮 시간대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등 폭염 대비 건강수칙과 개인 관리에 철저히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20일 고창군은 유기상 고창군수, 이길현 농수축산경제국장, 14개 읍면장과 추진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경관지구 조성사업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열었다

## 고창군, 내년 경관지구 1800ha 조성

### 울력추진위, 환경보전 · 돈 버는 농업 등 열띤 토론

'정보리발 축제'로 대한민국 경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린 고창군이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지구를 1800ha 조성한다. 20일 고창군은 유기상 고창군수, 이길현 농수축산경제국장, 14개 읍면장과 추진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경관지구 조성사업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열었다.

고창군은 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청정한 자연생태계를 보유한 만큼, 읍면별 특색있는 경관지구 1800ha(축구장 2500개 면적)를 조성할 계획이다. 차질없이 경관지구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내년부턴 경관지구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아름다운 관광지, 유채 등

수확으로 돈 버는 농업 지역경제 활성화, 기름진 토양으로 환경을 보전한다는 네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경관농업 울력추진위원회에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앞서 군은 올해 1300ha의 경관지구를 조성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힐링할 수 있는 명소를 만들기 위해 애썼지만 코로나19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코로나19와 이시기후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군민과 함께 경관농업을 통해 전 국민에게 힐링할 수 있는 자연을 제공하고 돈 버는 농업 등 네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함께 울력하며 최선을 다하자"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고창서 벼 첫 수확... 모내기 후 155일만

### 성송 산수리 일원 김성주씨 농가...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유통

한반도 농생명 발원지인 고창군이 20일 성송면 산수리 일원에서 김성주 농가의 조벼 1.3ha의 벼 첫 수확을 시작했다.

이번 벼 첫 수확 현장에는 유기상 고창군수, 임정호 고창군의회 부의장, 김영호 고창군의회 운영위원장, 진기영 농협중앙회 고창군지부장 김민성 대성농협장 등이 참석했다.

김성주 농가는 지난 4월 29일 모내기를 한 후 155일 만에 수확의 기쁨을 누렸다. 특히 김씨의 조벼는 서해안 해풍과

풍부한 일조량 특히 게르마늄과 미네랄 등이 다량 함유돼 최고의 쌀 품질을 자랑하고 있다.

이날 첫 수확을 시작으로 한결 RFC(대표 박종대)는 성송면 산수리, 주혁환 문영식 농가 등 70ha의 조벼를 수확해 한결RFC의 우수농산물 가공시설을 통해 합살로 가공돼 이마트에브리데이 매장 등으로 유통돼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고창군은 전 지역이 세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황금벌판의 기름진 땅에서 벼를 생산하고 최선별기가

완비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가공돼 신선도가 높고 밥맛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벼 첫 수확 현장에 참석하여 직접 품바인을 타고 벼를 수확해 낱알 상태를 살피는 등 농민들과 첫 수확의 기쁨을 함께했다.

유 군수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농업 현실에도 불구하고 수확의 기쁨을 함께해 고맙다"며 "고품질 쌀 생산 가공, 유통 활성화를 통해 쌀 출력 농사 지은 우리 쌀을 제값 받아 농업인의 고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읍시, '더 편리해진' 무인 민원발급기

###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도입

정읍시가 그동안 현금 결제만 가능했던 무인민원발급기에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변경 개선했다.

시는 이용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신용·체크카드와 휴대전화로도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는 결제서비스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는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결제할 수 있어 이용자가 별도의 현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간편결제(삼성페이)를 이용한 수수료 결제가 가능해져 현금을 갖고 다니지 않

는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에서 카드 결제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으로 아직은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현재 정읍시는 총 12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건축물대장, 지방세특별과세증명서 국제 관련 증명서 등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읍시청과 정읍농협 수성지점 앞, 내장산동 공공플러스센터, 연지아트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가 그동안 현금 결제만 가능했던 무인민원발급기에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변경 개선했다.

## 퓨얼셀랩스 김태영 대표, 장학금 1000만원 기탁

### 부안서 창업한 스타트업에 인재육성 동참, 잔잔한 감동

부안군에서 창업한 스타트업체 (주)퓨얼셀랩스(대표 김태영)는 지난 20일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을 방문해 부안군과 함께 성장 발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1,000만원을 기탁해 지역사회에 큰 감동을 주고 있다.

김태영 대표는 "부안군은 수소산업에 대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서 창업을 하게 되었던 만큼 부안군 교육에 대한 혁신적인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장학금 기부 문화를 동참하게 되었다"며 "장학금 기부를 통해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부안군이 교육도시로써 우뚝 성장했다면 한다"는 뜻을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연료전지 파워팩과 시스템 설계업체인 (주)퓨얼셀랩스는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 혁신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3년간 135억원의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앞으로 (주)퓨얼셀랩스는 부안군 신재생에너지산단에 공장을 짓고 수소연료전지 개발 및 생산으로 부안군의 청정 수소경제 산업의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은 "부안군 신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수소경제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룩하듯이 기부문화 확산으로 혁신교육을 위한 인재육성의 발판을 마련했으면 한다"며 "장학금 기부문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주)퓨얼셀랩스 김태영 대표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